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아버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에 의한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선대학교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손애리

아버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에 의한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Effects of Fathers' Playfulness on Children's
Playfulnes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by
Work-Family Conflict perceived by Fathers

2022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손애리

아버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에 의한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도교수 오 지 현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손애리

손애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지현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7
II. 이론적 배경	9
A. 아버지 놀이성, 유아 놀이성	9
1. 유아의 놀이 및 놀이성의 개념	9
2. 아버지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11
B. 아버지 놀이성, 아버지 놀이참여태도, 유아의 놀이성	14
C. 아버지 놀이성, 아버지 놀이참여태도, 아버지 일-가정 갈등, 유아의 놀이성	16
III. 연구방법	19
A. 연구대상	19
B. 측정도구	20
C. 연구절차	22
D. 분석방법	22
IV. 연구결과	24
A.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24
B.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	

여 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25
C. 아버지 놀이성과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관계에서 아버지 일-가정 갈등의 조절효과 분석	26
D. 아버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일-가정 갈등에 의한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28
V. 논의 및 결론	31
참고문헌	37
부록	44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아버지)의 일반적 특성	20
<표 2> 측정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24
<표 3>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26
<표 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26
<표 5> 아버지 놀이성이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에 미 치는 영향에의 아버지 일-가정 갈등의 조절효과 검증 ..	27
<표 6> 조절효과 단순 회귀선 검증	28
<표 7> 아버지 일-가정 갈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30
<표 8> 조절된 매개 검증	30
<표 9>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30

그림 목 차

[그림 1] 가설모형	8
[그림 2]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에 대한 아버지 놀이성과 일-가정 갈등의 상호작용 효과	28

ABSTRACT

Effects of Fathers' Playfulness on Children's Playfulnes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by Work-Family Conflict perceived by Fathers

Son AeRee

Advisor : Prof. Oh, Ji Hyun, Ph.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and work-family conflict perceived by fath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layfulness and children's playfulness. Specifically, the mediating effect of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perceived by fathers were examin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layfulness and children's playfulness. A total of 304 people(fathers and children aged 4-6years)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for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between variables using SPSS 26.0 and SPSS PROCESS Macro.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layfulness and children's playfulness was mediated by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Also, work-family conflict perceived by father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layfulness and fathers' play participation attitude. Lastly, work-family conflict perceived by fathers moderated mediation effect from fathers' playfulness to children's playfulness through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e importance of reducing the work-family conflict level because it is a factor that is highly correlated with the play participation attitude fathers show when they are with their chil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parent counseling, education programs and systemizing ways to reduce levels of the work-family conflict are discussed.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놀이라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내적 세계를 외부세계에 표출하고, 놀이라는 자원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사용한다(최태선, 2020). 또한, 자발적인 놀이로 일상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환경에 적응해 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처럼 놀이는 유아의 신체, 정서, 사회, 언어, 인지적 영역에서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 시키고,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놀면서 생각하고 배우는 유아기의 특성과 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2019년 개정 누리과정(교육부, 2019)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놀이를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핵심 요인인 놀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현, 박신희, 백지성, 2020; 최미숙, 문인정, 2020; 최태선, 2020)

놀이를 심리학적 구인으로 접근하는 개념을 놀이성(playfulness)라고 하고, 이는 다섯 가지 요소—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로 이루어진다(Lieberman, 1977). 이에 더하여, Barnett(1991)은 놀이성이란, 자발성을 가지고 즐거운 상황을 만들어내며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내적 성격, 놀이 행동 또는 태도나 성향을 의미한다고 하였고(김수정, 2006; 권인옥, 안효진, 2015에서 재인용), Dewey(1933)는 놀이성이 가지는 내적 특징이 놀이 그 자체보다 유아 발달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이미션, 2011) 놀이보다 놀이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의 놀이성은 사회성(강지혜, 이경님, 2011; 김영희, 2002; 박화운, 마지순, 천은영, 2004; 우수경, 2008; 황윤세, 최미숙, 2007), 정서적 능력(오주현, 2013; 최명선, 김지혜, 2006), 행복감 및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능력(강민서, 유미숙, 2010; 양희용, 2019), 유능성 및 창의성(고소영, 2003; 임희경, 2008; 황윤세, 2008)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놀이성이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놀이성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미경과 김용미(2016)의 연구를 통해 유아의 기질 중 적응성, 반응성, 활동성 그리고 생리적 규칙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놀이성은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성격의 한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다(전유진, 유미숙, 2020). 그러나 이러한 개인 내적 요인과 더불어

어 놀이성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아동의 놀이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아기는 Erikson(1950)이 제시한 놀이 행동 중 3단계 영역인 거시영역 놀이 단계—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놀이 행동—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 시기의 아동은 놀이를 통해 주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에 중요한 사회적 기초를 다진다. 그 중,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일차적 생활환경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상호작용이자 부모는 적극적 놀이 환경 제공자이며,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상호작용 대상이므로 유아-부모 간 놀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배미경, 김용미, 2016; Mills & Grusec, 1988).

한편, 유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로부터 각각 다른 질적인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김선훈, 2013; 임희영, 1998; 조복희, 1996; Clarke-Stewart, 1978; Lamb, 1977).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영덕(2016)과 문성희(2019)의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양은 어머니와 비하여 더 적지만, 어머니는 이를 대부분 양육과 보호, 교육의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아버지는 신체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자극이 많이 되는 놀이 행동을 활발히 한다고 하였고(김다정, 2010), 이는 Kotelchuck(1976), Bronstein과 Cowan(1988) 그리고 송은혜(200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Lamb(1977a)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참여 수준 및 놀이 행동에 대해 어머니의 놀이는 언어적이고(Parke, 1981), 교수놀이, 게임, 역할놀이 순으로 많이 하며, 아버지는 좀 더 신체적인 놀이, 즉 거칠고 튀구는 형태의 촉각적이고, 감각적 자극을 수반한 놀이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유아는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어머니와의 놀이 보다 모험적이고, 창의적이며, 활동적인 아버지와의 놀이시간을 선호하고(이영환, 2001; Pruett, 2000), 이러한 아버지의 놀이 자극이 유아에게 더 많이 작용 될수록 유아는 놀이를 더 즐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성향이 높아지며, 또래 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에서 유의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고영실, 부정민, 2009; 김보민, 2006; 김진혜, 2009; 원희영, 1998; 장여옥, 2016; 황정숙, 2014). 이는 학령기 전 단계에 속하는 유아에게 있어 아버지의 놀이는 긍정적인 요소를 수반하고 있으며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나타낸다.

한편, Proyer(2012)은 유아의 내적 성격을 의미하는 놀이성이 성인들의 삶에도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부정민과 김진선(2009)은 이러한 성인의 놀이성에 대해, 자신이 당면한 상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하여 환경을 보다 유쾌하게 전환 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라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Glynn과 Webster(1992)는 놀이성이란 성격 구조로서 자발성, 표현력, 창의성, 익살스러움과 재

미의 특징을 수반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공식화하여 성인용 놀이성 척도(Adult Playfulness Scale: APS)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척도들을 사용하여 시행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새롭고 자극 중심적인 놀이를 더 많이 시도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성이 어머니의 놀이성보다 더 풍부함을 확인할 수 있다(박하얀, 배선영, 2018; Lamb, 2010). 또한, 창의성, 상상력과 호기심 등을 포함하는 놀이성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의도된 놀이 활동을 계획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자녀의 기분에 맞춰 즉흥적으로 놀이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전혜영, 이희선, 2019), 이러한 놀이성을 통해 아버지는 유아 자녀와의 애착이 증진되고, 정서적인 친밀감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김기순(2002)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은 부모의 성격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Cabrera, Shannon, & Tamis-LeMonda, 2007).

부모 또는 아버지와 유아 놀이성과의 관계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놀이성이 높은 아버지는 유아의 놀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유아의 높은 놀이성은 리더십, 자아 탄력성, 사회적 유능성, 적응력 등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강수경, 김민정, 정미라, 2015; 김은경, 2008; 문성영, 심성경, 2020; 심윤희, 2011; 오지현, 임시형, 2018; Shen, Chick, & Pitas, 2017). 이는 놀이성이 높은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유아의 놀이에 대해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폭넓은 놀이의 허용을 경험한 유아들은 놀이에 대해 자신감과 주도성을 갖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곽경화, 최진숙, 백승선, 2020). 그러나 아버지가 놀이성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유아의 놀이성과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은 연구들도 있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아버지의 놀이성과 영아 놀이성과의 관계는 하위영역 전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김영덕, 2016),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부정민, 김진선, 2009). 이러한 비 일관된 관계성의 양상은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모두 내적 동기의 영향을 받는 성격적인 특성을 포함함과 동시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신호를 탐색하는 후천적 영향을 받는 특성도 내포하고 있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정정옥, 이형민, 2018; Bundy, 1997), 아버지의 놀이성이 ‘어떻게’ 유아의 놀이성을 촉진 시킬 수 있는지 즉, 아버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그 사이에서 작용하는 기제는 어떠한 것인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놀이성을 선행변수로 설정하고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것을 살펴보면 놀이 활동에 참여하려는 성향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

는 놀이성이 아버지의 행동 결정인자로서 작용함이 밝혀졌고(박영애, 최영희, 박인진, 2002; Bruner, 1991; Rogers, 1988), 이는 곧 놀이성이 높은 아버지가 자녀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함께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놀이의 수준을 높이고, 유아의 놀이성 및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주, 박형신, 2017). 이에 다수의 연구자는 놀이성으로 인해 촉발되는 행동 변인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종합하면 크게 양육 행동과 놀이 행동으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 특성이 일반적 양육 참여보다는 놀이 상황과 관련된 상호작용적 참여가 더 많다는 것과(김은화, 2011) 함께 최태선(2020)을 통해 아버지 양육 참여도, 특히 양육 속에서의 놀이참여와 관련된 요인이 유아 놀이성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어 아버지 놀이성으로 인해 촉발되는 행동 양상을 놀이 변인으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 놀이와 관련한 아버지 놀이 변인의 선행연구는 놀이신념(김은주, 2009; 오정미, 2014; 이한별, 2008; 이현지, 2016; 임예슬, 2014; 하미현, 2010; 한혜진, 2009), 놀이참여 시간(김정수, 황혜신, 2020; 임시형, 2017; 정은혜, 2019), 놀이참여도(백선정, 김희화, 2020; 송은혜, 2008; 최혜순, 김찬숙, 2011; 홍혜미, 2010)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각 변수는 유아의 발달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먼저 놀이신념이란 유아의 놀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으로 자녀의 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을 내포하는 개념이며, 크게 놀이중심 신념과 학습중심 신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성희(2019)와 이한별(2008)의 연구를 통해 놀이 중심 신념을 가진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는 곧 자녀의 놀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문성희, 2019). 놀이참여 시간은 단어 그대로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아버지가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놀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김보민, 2005; 김수희, 2004). 마지막으로 놀이참여도는 유아의 놀이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며, 참여 시 어떤 유형의 놀이를 어느 수준으로 참여하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유형(구성놀이, 신체놀이, 교수놀이, 게임, 역할놀이, 기능놀이)과 수준(무관심, 바라보기,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을 함께 측정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아버지의 신체놀이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인지적 능력 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보민, 2005).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주로 양적 놀이참여 변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었고, 놀이상황에서의 질적 놀이참여 변인 부분이 간과되어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놀이참여 태도란, 아버지가 유아와의 놀이 상호작용 장면에서 나타나는 태도에 관한

것으로, 자녀의 신호를 얼마나 민감하게 인지하는지(민감하게 놀기),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며(반응적으로 놀기), 자녀가 흥미를 보이는 것에 함께 참여하여 즐겁게 노는지(즐겁게 놀기)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백선정, 김희화, 2020; 이소연, 위영희, 우재령, 정윤주, 이영애, 김리진, 2018; Tamis-LeMonda, 2004). 이소연 등(2018)의 연구를 통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척도이므로 이 척도를 직접 사용한 선행연구는 많지는 않으나(곽경화 등, 2020; 백선정, 김희화, 2020; 이소연 등, 2018), 기존에 있는 양적 놀이참여 변인으로 시행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와 유아 놀이성의 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실제적인 놀이참여에 영향을 미쳐 유아로 하여금 놀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건강한 놀이 행동을 유도한다는 연구결과(최태선, 2020)와 유아의 실행기능에 대한 부모의 놀이참여수준 및 놀이참여 태도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통해서 놀이참여수준이 놀이참여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여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백선정, 김희화, 2020) 등을 통해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가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곽경화 등, 2020; 김선훈, 2013; 김영덕, 2016; 문성희, 2019). 또한,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가 유아의 놀이성에 원인 변수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 놀이신념과 놀이참여도는 아버지의 놀이성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음을 다수의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김정주, 박형신, 2017; 박하얀, 배선영, 2018; 이현지, 정혜옥, 2016; 전해영, 이희선, 2019; 최태선, 2020; 황지현, 2012). 이와 더불어 놀이참여 태도 척도를 개발한 이소연 등(2018)의 연구를 통해 놀이참여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과 총점이 부모의 놀이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직접적인 경로를 밝힘에 따라 놀이참여 태도가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적합하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특히, 놀이참여 태도는 아버지에 적합한 변수임을 알 수 있는데, 아버지의 적극적인 놀이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놀이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나(오정미, 2014), 김영덕(2016)의 연구결과를 통해 평일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놀이참여 시간은 30분에서 한 시간 미만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아버지-유아 간 ‘상호작용 양’을 추측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로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 및 놀이에 많은 시간 참여하지 못하고 한정되어있는 아버지에게 있어 아버지-유아 간 ‘놀이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유 배우자 가정의 맞벌이 가정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와 가정 내 남성의 역할이 변화를 맞이하였다(김희영, 유효인, 2019). 플대디(Pldaddy; 놀이하러는 아빠), 스칸디대디(Scandi Daddy;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빠), 아버지 효과(fathering effect) 등의 신조어의 탄생(문성영, 심성

경, 2020; 이주리, 송지원, 2020)과 ‘수요일은 가족의 날’ 지정 조기 퇴근 지지하기[목포시(2011년 시행), 울산 현대그룹/춘천시(2015년 시행), 여성가족부(2010)] 등과 같은 사회 제도의 구축(권인옥, 안효진, 2015)은 남성에게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책임 및 놀이참여자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일과 가정영역에 대한 책임의 균형성과 관련한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OECD(2011)가 말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개인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고, 이 ‘균형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있어 매우 핵심적인 일이라고 하였다. 황미라(2011)는 일-가정 양립을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에서 나오는 두 가지 다른 영역의 역할을 어려움 없이 잘 수행하는 상태라 정의하였고, 일-가정 양립 시 갈등이란 이러한 균형 상태가 깨져 역할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현상이라 하였다(김희영, 유효인, 2019에서 재인용).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의 경력 성공 인식에 관한 탐색적 조사’의 연구결과는 전체의 69.2%가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고(조희경, 채창균, 차종석, 2013), 2019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통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남성의 일 평균 가사노동은 36분에서 53분으로, 여전히 여성에 비해(160분에서 151분으로 줄어듦) 현저히 적은 시간이지만,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일과 가정 사이의 경험은 더이상 여성에게 국한되는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김연하, 장욱, 서흥우, 2019)

이정순, 조희숙(2005)에 따르면 현 사회의 아버지들은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일과 가정 내 아버지로서의 역할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 사이의 갈등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스트레스인 양육 스트레스를 야기 시킨다고 하였다(김희영, 유효인, 2019). Abidin(1995)의 양육 스트레스 모형에 따르면 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우울은 양육 스트레스와 직결하고, 이는 부 자신의 양육 행동 및 양육 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손영지, 박선영, 2011; 장래수, 김영희, 2014).

일-가정 양립을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는 일-가정 갈등이 일 영역에 미치는 영향(최수찬, 김종성, 2016; 최항석, 2015; 현성은, 문계완, 2015), 삶의 만족도, 우울, 행복 등 개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강가원, 장진이, 2016; 이소진, 김은석, 유성경, 2017; 이주일, 유경, 2010) 또는 양육 변인 간 관계(박봉선, 엄명용, 2016; 박주희, 2015; 이슬기, 전귀연, 김수경, 2007; 정태숙, 김영희, 2014; 한의선, 2014)를 본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가정 갈등이 가정영역에 미치는 영향 중 놀이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의 학문적 연구 및 이해는 매우 드물다(이운경 등, 2018). 특히, 일-가정 갈등이 야

기하는 심리적 특성이 가정 내 아버지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약화 시키며 이는 곧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김희영, 유효인, 2019; 심향, 심숙영, 2018; 정진나, 2017) 유아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유아의 놀이성을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참여 태도,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놀이성이 놀이참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이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의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일관되지 않았던 유아의 놀이성과 아버지 놀이성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가 놀이 장면 시 보이는 놀이참여 태도를 통해 설명하여 성격특성이라는 기질적인 요인에 더하여 경험적이고 후천적인 영향을 강화하는, 즉, 놀이참여 태도를 증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일과 가족 관계에서의 경험은 이러한 상호작용 경험의 질에 영향을 끼치므로(Vieira et al., 2017)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부모 상담 시, 아버지 역할을 교육하며 이와 더불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입학준비를 준비하는 맞벌이 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B.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는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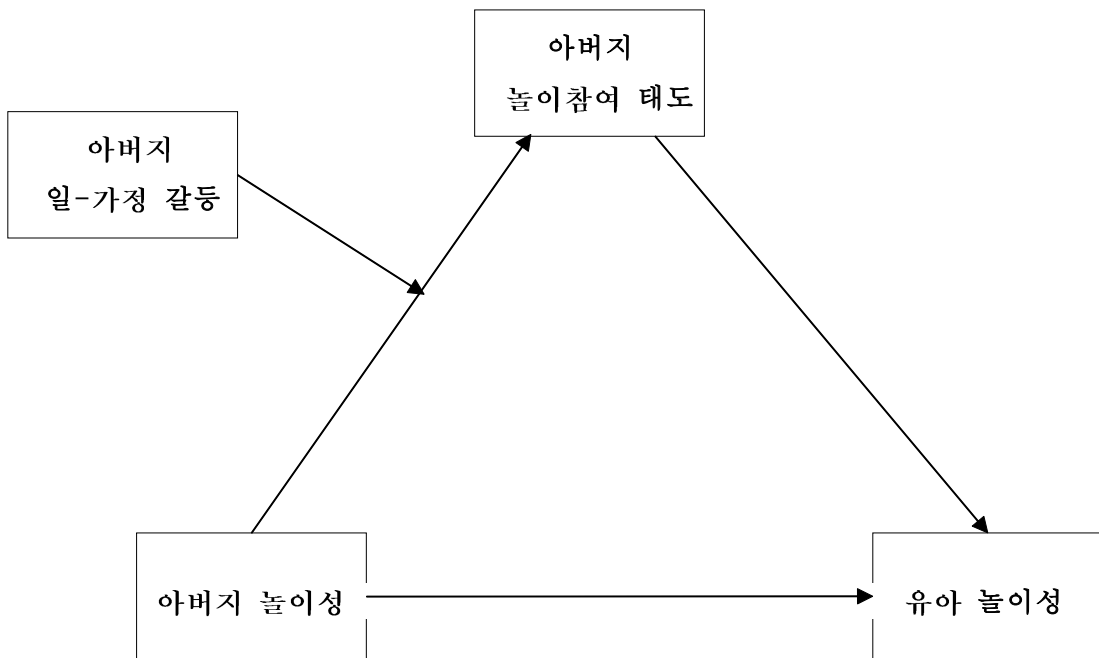
연구문제2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은 아버지 놀이성과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문제3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은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의 매개 효과를 조절하는가?

[그림 1] 가설모형



II. 이론적 배경

A. 아버지 놀이성, 유아 놀이성

1. 유아의 놀이 및 놀이성의 개념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해당하는 유아기는 자아와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정서적 발달에 기반이 되는 시기(김보민, 2005)이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일과 휴식, 놀이가 분명히 구분되어있는 성인의 삶과는 달리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 놀이 활동을 하며 보낸다. 유아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그에 맞는 놀이를 찾으며, 놀이를 통해 나타나는 행동 양식 또한 유아마다 다르다(최유석, 임지영, 2021). 그렇기에 유아들에게 있어 놀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자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김경은 등, 2020; 광경화 등, 2020), 내적으로 동기화된 자발적인 활동이자 표현이다(백승선, 2020). 유아는 이러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고, 주변 세계를 탐색하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김경은 등, 2020; 김영덕, 2016; 백승선 등, 2020). 또한, 놀이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신체적, 사회적 발달을 익혀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며(김영덕, 2016; 광경화 등, 2020; 이지인, 2020), 이는 곧 이후 발달 단계에 영향을 미쳐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놀이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Freud(1961)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놀이란 일상생활에서 억압된 여러 가지 정서, 욕구, 심적 갈등 등을 안전한 상황에서 발산시키고, 해소 시키는 수단이 되며, 부정적인 정서가 놀이를 통해 감소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Erikson은 놀이 행동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을 할 수 있고, 정서적 해방을 촉진하는 힘이 놀이 자체에 내재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Piaget은 인지 발달적 입장에서 놀이란 사고를 행동과 통합하는 통로라고 보았으며, 인지발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도식에 여러 가지 대상을 동화시키면서 얻는 즐거움을 위해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송경은, 2013 재인용).

유아는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놀이형태를 보이며 개인마다 놀이에 대한 활동 선호도와 반응이 다르다(이숙재, 2004). 혼자 노는 아이, 또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 피규어를 좋아하는 아이, 유머나 장난을 치며 노는 것을 선호하는 아이 등 유아들의 놀이 행동에는 차이가 나타나고(박애경, 김보라, 연규승, 2018), 이는 여러 학자들로 하여금 놀이를 구현하는 원동력, 성향, 태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을 느끼게 하였다(김선희, 2013). 다수의 연구자들(Lieberman 1965; Barnett, 1990; Glynn & Webster, 1992)은 이를 심리학적 개념으로 정리하여 ‘놀이성(playfulness)’이라 정의하였다.

여러 국내외 연구를 통해 정의된 놀이성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Menashe-Grinberg와 Atzaba-Poria(2017)는 놀이성을 유연한 사고, 창의성, 유쾌함의 조합으로 구성된 놀기 위한 기질로 보았고, Glynn & Webster(1992)는 놀이성에는 개인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억압된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놀이 태도라 정의하였으며, Boyer(1997)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내재적 동기이자 즐거움을 표현하는 유아의 태도라 정의하였다(김정수, 2020; 오지현, 임시형, 2018 재인용). 국내 연구로 살펴보면, 김영희(1995)는 놀이성을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이자 최대로 즐길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성향 내지 내재적 동기로 보았고(김영덕, 2016), 송준석, 고현(2016)은 좌절된 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놀이적인 태도 및 성향으로 전환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할 수 있는 성격적인 특성이라 하였다(고현 등, 2020). 이처럼 놀이성에 대한 정의는 관점마다 학자마다 다양하나 이를 종합해 보면 놀이성이란 놀이 시 나타나는 놀이에 참여하는 태도이자 개인의 내재적인 성향에서 비롯되는 성격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놀이성에 대한 개념화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놀이성이 유아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Lieberman(1965)은 놀이에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여 놀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형태, 놀이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개인차 등의 본질적인 측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하였고, 최초로 놀이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최유석, 임지영, 2020). Barnett(1991)은 이 연구에 기초를 두고 놀이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Children’s Playfulness Scale : CPS)를 개발하였으며, Lieberman(1965)과 Barnett(1991)은 놀이성의 개념을 공통적으로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의 총 5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박선영, 2010; 임시형, 2017; 최유석, 임지영, 2020).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자발성은 놀이 시 유아의 신체적 협응 및 운동활동 수준 또는 성향이고, 인지적 자발성은 상상력을 통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놀이를 이끌어가는 성향이며, 사회적 자발성은 놀이할 때 다른 유아와 협력하고 반응하는, 친구를 쉽게 사귄 수 있는 성향을 의미한다. 또한,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 시 느끼는 다양한 긍정적인 정서와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유머감각은 다른 유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해주는 것을 포함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하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잘 웃기 등을 내포한 성향을 의

미한다(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 임시형, 2017; 재인용).

이러한 척도를 활용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의 놀이성은 일상생활 적응(김선혜, 2013)과 정서적 능력(오주현, 2013; 최명선, 김지혜, 2006)과 관련되며, 놀이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김영희, 2002; 우수경, 2008; 황윤세, 최미숙, 2007)을 통해 적극적인 놀이 및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김미숙, 2001; 임시형, 2017 재인용),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이연실, 2010), 유치원에 잘 적응하고(강민서, 유미숙, 2010; 양희용, 2019), 유능성과 창의성이 높다(고소용, 2003; 임희경, 2008; 황윤세, 2008)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놀이성이 유아 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이후 발달 과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유의미한 결과로써 유아의 놀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놀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2.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는 유아가 세상에 빛을 본 후 만나는 최초의 타인이자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대상이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대상자이다. Vygotsky(1978)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아의 발달적 시기에 있어 성인의 역할 및 적극성을 강조하였는데, 근접발달지대(ZPD)에서의 성인의 개입은 발달 중에 있는 유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으며(김정수, 2020 재인용), Mills&Grusec(1988)은 유아에게 있어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외부 환경과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는 유아기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다(배미경, 김용미, 2016 재인용).

여러 연구를 통해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놀이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가장 밀접한 상호작용 대상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김영주, 2006; 김희태, 김정림, 2012; 박유란, 2020; 홍수경, 2010), 주로 유아의 놀이성과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부모 역할과의 상관에 대한 연구(박정연, 이성희, 2009; 박현진 등, 2019; 이배, 김경숙, 2013; 장영숙, 조혜정, 2006)에 집중되어 있었고, 부모의 놀이 변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Fein(1985)은 유아와의 놀이 활동에 참여한 부모가 자녀의 놀이에 흥미를 보이고, 놀이대상자로부터 유아의 놀이가 승인받는 과정을 겪으며 유아는 놀이가 가치 있음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부모가 유아의 놀이 수준에 맞추어 참여할 때, 유아는 부모를

친근한 놀이 참여자 내지 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욱 놀이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문성영, 심성경, 2020 재인용). 또한, Lee(2015)에 의하면 유아는 부모의 적극적인 놀이참여를 통해 놀이를 확장 시킬 수 있고, 유아의 놀이성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 정서, 인지 영역의 발달로 이어진다고 하였다(최유석, 임지영, 2021). 이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 증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모 변수 중 양육 개입 뿐 아니라 놀이 개입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 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다양한 놀이 변인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문성영, 심성경, 2020; 임성혜 등, 2003; 하미현, 2010; 황윤세, 2012) 중, 한지현과 이진숙(2015)은 아동뿐 아니라 성인의 삶에도 놀이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는 유아기의 긍정적 발달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진다고 하였다(김정수, 2020 재인용). 부정민과 김진선(2009)은 유아의 놀이성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놀이성 또한 재미, 자유로움, 즐거움, 유쾌함의 요소를 수반한 개인의 성격 특성이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황에 대한 대처 양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주어진 환경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전환하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심리적 구인이라 정의하였다. 부모-자녀의 놀이 시 이러한 부모의 놀이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김영덕, 2016), 이는 놀이를 일으키는 촉진제가 되어(Burner, 1974)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내고 더욱 큰 즐거움으로 놀이에 몰입하도록 한다(김현아, 2013). 유아의 놀이성은 이러한 부모의 성격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에게 있어 부모의 놀이성은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며(김기순, 2002), Glynn&Webster(1992)는 이러한 성인 놀이성을 자발성, 창의성, 표현력, 익살스러움, 재미의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게 한 측정도구(Adult Playfulness Scale: APS)를 개발하였다.

Menashe-Greinberg와 Atzaba-Poria(2017)은 부모-자녀 놀이에서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부모의 놀이성을 향상 시켜야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다수의 선행연구(김영덕, 2016; 부정민, 김진선, 2009; 임시형, 2017)를 통해 부모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놀이성이 높은 부모는 말이나 행동에 순발력과 재치가 있어 유아가 놀이에 더욱 즐겁게 몰입하도록 도와 유아의 놀이성 수준을 높이고, 이는 곧 적응력 및 유능성, 회복탄력성 등의 발달(김은경, 2008; 문성영, 심성경, 2020; 박성혜, 2017; 오지현, 임시형, 2018 재인용; Shen, Chick & Pitas, 2017)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 사이에 정적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다수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기순과 박인전(2002)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즐거움·낙천 지향적 놀이성이 남아의 놀이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였으나, 부정민과 김진선(200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 김영덕(201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성과 영유아의 놀이성 하위영역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하여 이를 통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부모 놀이성의 영향력이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놀이성이 가지는 강한 개인 내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요인의 영향이 비일관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부모의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성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기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좀 더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고려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어머니의 놀이형태와 참여수준에 중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강주연, 이진희, 2020; 김윤희, 2019; 송경은, 2013; 심미영, 이문옥, 201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버지가 자녀의 놀이에 미치는 영향(류희정, 이진희, 2013; 임정란, 2002; Roggman, 2004; Tamis-LeMonda et al., 2004)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형태는 주로 놀이 활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김정주, 박형신, 2017; 문성희, 2019), 이러한 아버지의 놀이참여는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Lamb, 2010; Parke, 1996). 김영덕(2016)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놀이에 참여하는 유형이 다르며 그 효과가 다르다고 하였고(김영덕, 2016 재인용; Dickson, Heather, & Alan 1997; McDowell & Parker, 1984; Stevenson, Thompson, & Roach, 1988), 유아는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로부터 각기 다른 질적인 자극을 받는다고 하였다(김선희, 2013; 임희영, 1998; 조복희, 1996; Clarke-Stewart, 1978; Lamb, 197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larke-Stewart(1980)는 어머니는 유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반면에 아버지는 더 자극적이고 신체적인 놀이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배미경, 김용미, 2016 재인용). 이와 더불어 Lamb(1997a)는 4~8시간의 가정방문을 통해 아버지와 유아, 어머니와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는데, 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를 들어 올리는 이유가 다름을 발견하였다. 먼저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들어 올렸고, 아버지는 놀기 위해서 자녀를 안았다. 즉, 어머니는 놀이를 보호 및 양육을 위한 행동으로 상호작용하였고, 아버지는 신체적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어머니는 놀이를 통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언어적이고 지시적 놀이, 구성 놀이를 선호하는 반면, 아버지의 놀이형태는 유아와 가까이서 신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극적이고 활동적인 놀이를 하며, 또래처럼 행동하면서 자녀에게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송은혜,

2008; 윤상인, 2011; John, Halliburton, & Humphrey, 2013; McBride & Mills, 1993; Power & Parke, 1983). 오지현과 임시형(2018)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민감성과 양육 역량 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아버지의 놀이성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에는 아동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소를 수반함을 알 수 있다(Roggman, 2004).

Pruett(2000)은 유아 자녀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방식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유아도 각기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양육과 보호, 교육 측면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어머니와의 놀이 보다는 아버지와 놀이를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와 몰입의 정도가 더 강하고 더 반긴다고 보고하였다(김선희, 2013). 이는 아버지의 놀이는 예측하기 어렵고 활동적이므로 신체적인 놀이와 역동적인 놀이를 선호하는 유아기 자녀들은 아버지의 놀이참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이지인, 2020; 이영환, 2001; Pruet, 2000), 아버지와 놀이시간을 더 선호하며, 다수의 선행연구(김다정, 2010; 이종순, 김규수, 2008; 정금자, 박미라, 2013; 최미숙, 송순옥, 2014; 최정옥, 2013)를 통해 이러한 아버지의 놀이 자극이 많을수록 유아의 자아 존중감, 정서조절 능력, 사회성 및 또래 유능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어,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아버지의 놀이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B. 아버지 놀이성, 아버지 놀이참여태도, 유아 놀이성

놀이성이 높은 아버지는 자녀의 눈높이에서 또래처럼 놀이에 참여하고, 신체적·감각적 자극이 많이 되는 놀이 행동을 활발히 한다(김다정, 2010). 이는 곧 유아의 놀이성에 정적 영향을 미쳐 창의적인 방법으로 놀잇감을 사용하며 더 몰입하여 즐겁게 놀이 활동을 지속하게 되고, 이러한 아버지의 놀이를 많이 경험한 유아일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고(차민주, 김낙홍, 2020), 또래 관계가 원활하며 인기가 높다(MacDonald & Parke, 1984).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놀이성 수준이 낮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유아의 놀이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었으며(김영덕, 2016; 부정민, 김진선, 2019) 이를 통해 부모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이 비 일관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 내적 성격 특성을 가진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놀이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증진될 수 있다(정정옥, 이형민, 2018)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놀이성과 놀이참여 행동 사이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여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한 연구(박하얀, 배선영, 2018)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경로를 밝힐 수 있는 기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기존에 연구된 유아 놀이와 관련한 아버지 놀이 변인의 양상을 살펴보면, 놀이신념(김은주, 2009; 오정미, 2014; 이한별, 2008; 이현지, 2016; 임예슬, 2014; ; 하미현, 2010; 한혜진, 2009), 놀이참여 시간(김정수, 황혜신, 2020; 임시형, 2017; 정은혜, 2019), 놀이참여도(백선정, 김희화, 2020; 송은혜, 2008; 최혜순, 김찬숙, 2011; 홍혜미, 2010)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놀이신념이란 유아의 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한별(2008)의 연구를 통해 자녀의 놀이에 지지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녀의 놀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문성희, 2019). 이와 더불어 놀이참여 시간은 단어 그대로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아버지가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놀이성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김보민, 2005; 김수희, 2004). 또한, 놀이참여도는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참여 시 어떤 유형의 놀이를, 어느 수준으로 참여하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놀이의 유형에는 구성 놀이, 신체 놀이, 교수 놀이, 게임, 역할 놀이, 기능 놀이 등이 있으며(원희영, 1998), 이러한 놀이유형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가(무관심-적극적 참여, 총 4수준)를 함께 볼 수 있다.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중 특히 신체놀이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인지적 능력 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김보민, 2005).

위의 변수들과 관련한 연구들을 통해 아버지와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 시 양적인 변수에 초점을 둔 연구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상호작용의 질적인 부분이 간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수의 선행연구는 아버지와 유아의 질적인 놀이 상호작용에 대해 제언하였으며 이는 곧, ‘아버지가 어떤 종류의 놀이에 집중해야 하는가보다 어떻게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은가’(곽경화 등, 2020), ‘유아에게 단순히 많은 놀이 경험을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놀아주는 것이 필요한가’(김선훈, 2013; 문성희, 2019), 그리고 ‘부모의 놀이성과 영아의 놀이성에는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질적인 놀이참여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김영덕, 2016) 등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경로를 밝힐 수 있는 환경적인 기제를 질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할 수 있는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로 설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놀이참여 태도란, 아버지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할 때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감하게 놀기, 반응적으로 놀기, 즐겁게 놀기의 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놀이 상호작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양육 특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놀이성이 높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반응을 잘해주며 양육 참

여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고(김종석, 2011),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 간 관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황지현, 2012), 아버지의 성격 특성은 행동의 결정 인자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2)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놀이참여 태도의 하위요인과 총점이 부모의 놀이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이소연 등, 2018) 등을 통해 아버지의 놀이성이 놀이참여 태도를 선행하는 변수임을 직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는 유아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배미경, 김용미, 2016),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과 놀이참여 태도, 그리고 유아의 실행기능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 하위요인 중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힌 연구 결과(백선정, 김희화, 2020) 등을 통해 놀이참여 태도가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사이를 촉진할 수 있는 기제인 매개 변수로 적합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놀이참여 태도는 아버지에 적합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놀이시간이 확보되어야 하지만(오정미, 2014), 어머니와 아버지의 놀이참여 시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어머니는 한 시간 이상, 아버지는 30분에서 한 시간 미만이고(김영덕, 2016), 이는 아버지의 놀이 상호작용 양이 어머니에 비해 더 적음을 나타내는 결과이자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음을 의미한다. 이에 놀이 상호작용의 기회가 닿았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놀이 장면에 참여하는가, 즉, 유아-아버지 간 상호작용의 질을 점검하고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C. 아버지 놀이성, 아버지 놀이참여태도, 아버지 일-가정 갈등, 유아 놀이성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 시대’라고 표현할 만큼 현대 사회와 가정 내 남성의 역할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김희영, 유효인, 2019).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사회 진출과 유 배우자의 맞벌이 가정이 2009년 보고된 40.1%보다 2017년에 4.8% 가량이 증가함(통계청, 2017: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라 오늘날 남성에게는 양성적인(androgynous) 인간상이 요구되었으며, 어머니의 가사활동·양육과 경제활동이 자연스럽듯, 아버지의 경제활동과 양육 참여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김보민, 2005; 백지은, 1998). 또한,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유아 자녀 간 질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 놀이성, 자기조절 능력 등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이배, 김경숙, 2013; 장여옥, 2016; 전숙희, 2015; 정선영, 2019)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아버지

의 가정과 사회 내 역할 관련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Work-Family Balance)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개인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며(김연하 등, 2019), 좁은 의미로는 가정과 직장에서 나오는 각기 다른 역할 사이에서 어려움 없이 잘 수행하는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 그 중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은 이러한 균형 상태가 깨져 두 가지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 갈등이 벌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황미라, 2011; Marshall & Barnett, 1993).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일과 가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고자 하는 학문적 관심이 커졌고, 여러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두 이론을 정의하였다(허문선, 2018 재인용; Greenhaus & Powell, 2006; Zhang, 2016). 일-가정 양립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전이 모델(Spillover Model)’로 다른 두 독립된 영역이 서로 간 높은 관련성이 존재하여 한 영역에서 획득한 정서, 태도, 행동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진다고 보는 관점이며(Barnett, 1998; Edwards & Rothbard, 2000), 이는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일과 가족은 일정 부분 공유되는 지점도 있으나 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규범이나 전통 등, 상호 균형을 이루기 어려우며 이러한 균형이 깨짐에 따라 발생하는 일-가정 갈등은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수반한다(김연하 등, 2019 재인용; Grzywacz & Marks, 2000). 한편, ‘경계이론(Border theory)’은 개인은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에 속해 있지만, 각 영역의 경계를 매일 오가며, 서로 다른 문화와 목적, 전통을 가졌기에 병행하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율해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Clark, 2000).

따라서, 일과 가정이라는 독립된 영역에서 각각 부과된 역할을 병행하며 느끼는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의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느끼는 역할 간 갈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다양한 가정 형태에 속하여 있는 아버지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김연하 등, 2019).

이정순과 조희숙(2005)에 따르면 현 사회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일터로부터 요구되는 일과 가정 내 아버지로서의 역할 및 양육 참여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전이 모델에 따라 아버지가 지각하고 있는 일-가정 갈등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김희영, 유효인, 2019). 양육 스트레스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정서로 우울과 직결되고 넓게는 삶의 만족도(성미영 등, 2016)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곧 양육 효능감으로도 이어져(장래수, 김영희, 2014) 양육 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손영지, 박선영, 2011), 다

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주로 놀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김정주, 박형신, 2017; 김진성, 2017; 김향, 심숙영, 2018; 김희영, 유효인, 2019; 문성희, 2019). 이를 정리해보면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으로 야기된 일상의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를 수반하여(김연하 등, 2019 제인용; Grzywacz & Marks, 2000) 아버지-유아 자녀 간 놀이 시 나타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을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는 일-가정 갈등이 일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최수찬, 김종성, 2016; 최항석, 2015; 현성은, 문계완, 2015), 삶의 만족도, 우울, 행동 등 개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강가원, 장진이, 2016; 이소진, 김은석, 유성경, 2017; 이주일, 유경, 2010), 양육 변인 간 관계(박봉선, 엄명용, 2016; 박주희, 2015; 이슬기, 전귀연, 김수경, 2007; 정태숙, 김영희, 2014; 한의선, 2014)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가정 갈등과 놀이 변인 간 관계가 궁극적으로 유아의 놀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국내의 학문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과 자녀의 놀이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전이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 수준과 아버지의 놀이 변인, 그리고 유아 놀이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 태도 간 나타나는 정적인 관계가(김종석, 2011; 박영애, 최영희, 박인진, 2002, 이소연 등, 2018; 황지현, 2012) 아버지가 지각하는 일-가정 갈등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로가 궁극적으로 유아의 놀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놀이성이 높은 아버지들은 놀이참여 태도의 수준이 높고(김종석, 2011; 박영애, 최영희, 박인진, 2002, 이소연 등, 2018; 황지현, 2012) 이는 곧 유아의 놀이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배미경, 김용미, 2016; 백선정, 김희화, 2020) 일과 가정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심하게 느낄수록 놀이성이 놀이참여 태도로 나타나는 경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놀이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Vieira et al., 2017).

이를 통해 기존의 유아 놀이성과 아버지 놀이성 사이의 비 일관된 양상에 대해 놀이참여 태도라는 경험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를 증진 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 등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고 있을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아버지 역할을 환기할 수 있고, 중재 예방 프로그램 및 심리지원 등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유아기 아동은 놀이를 통해 신체, 정서, 사회, 언어, 인지 등 전 영역에서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가 자발적으로 놀이를 선택하고 창의적으로 놀며, 이를 확장해가는 성격적 특징인 놀이성의 수준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Barnett, 1991). 또한, 아버지의 놀이는 어머니와의 놀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자극을 유아에게 주며, 유아는 이러한 아버지의 예측 불가하고, 신체 감각적인 놀이를 더 선호하고(Pruett, 2000), 이는 곧 유아의 놀이성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장여옥, 2016). 이에 유아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로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라는 시기적 어려움과 주 연구대상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로 설정함에 따라 낮은 회수율이 예상되어 2021년 8월 초에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엠브레인)을 통해 실시하였고, 연구 참여 의사를 지닌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비밀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고, 설문의 소요시간은 10분에서 15분 사이였으며, 이에 동의한 아버지들만 연구에 참여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304명의 자료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평균 자녀 수는 2명(N=167, 54.9%), 1명(N=114, 37.5%), 3명(N=22, 7.2%), 4명(N=1, 0.3%) 순이었고, 설문을 진행할 시 유아기 자녀를 떠올리며 체크 하도록 안내하였다.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만 38.6세(SD=3.802)였고, 거주지는 경기도(29.6%), 서울(25%), 부산/인천(각 8.6%), 광주/경남(5.3%), 충북(3.9%), 대구(2.3%), 충남/대전(각 2%), 전북/전남/세종(각 1.6%), 경북(1.3%), 울산/강원(각 .7%)로 분포되었다. 그 외 일반적 특성은 하단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아버지)의 일반적 특성 (N=304)

변인	분류	아버지, N(%)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명 (2.3%)
	전문대 중퇴/재학/졸업	48명 (15.8%)
	4년제 중퇴/재학/졸업	176명 (57.9%)
	대학원 중퇴/재학/졸업	73명 (24%)
직업	일반 사무직	197명 (64.8%)
	전문직	33명 (10.9%)
	생산, 기능, 노무직	30명 (9.9%)
	서비스, 영업, 판매직	20명 (6.6%)
	자영업	14명 (4.6%)
	기타(군인, 목사, 대표 등)	7명 (2.3%)
	가사전담	3명 (1.0%)
월수입	100만원 미만	1명 (0.3%)
	100만원~200만원	3명 (1.0%)
	200만원~300만원	31명 (10.2%)
	300만원~400만원	83명 (27.3%)
	400만원~500만원	73명 (24%)
	500만원~600만원	46명 (15.1%)
	600만원 이상	67명 (22%)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평일)	1시간~3시간	223명 (73.3%)
	4시간~6시간	44명 (14.4%)
	8시간~12시간	9명 (3%)
	13시간~16시간	4명 (1.3%)
	없음	24명 (0.3%)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주말)	1시간~3시간	46명 (15.1%)
	4시간~6시간	88명 (29%)
	7시간~9시간	38명 (12.5%)
	10시간 이상	130명 (42.7%)
	없음	2명 (0.7%)

B. 측정도구

1. 유아 놀이성

본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김명순, 김길숙, 박찬화(2012)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유아용 놀이성 평정척도(Children's Playfulness Rating Scale, CP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3세에서 6세의 유아의 놀이성을 부모 평정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며, 4가지 범주(주도적 참여, 인지적 융통성, 즐거움의 표

현, 자발적 몰입)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주도적 참여’는 놀이 시 또래와의 협력하는 정도, 나누기, 접촉, 상호작용, 또래 수용 정도 등을 의미하며, ‘인지적 융통성’은 놀이 시 유아의 융통성, 독창성, 문제 해결력 등의 인지 과정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 시 기쁨, 즐거움, 성취에 대한 만족감, 미소 등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하고, ‘자발적 몰입’은 놀이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응답하며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평정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주도적 참여’가 .912, ‘인지적 융통성’이 .840, ‘즐거움의 표현’이 .829, ‘자발적 몰입’이 .721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의 놀이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37로 나타났다.

2. 아버지 놀이성

본 연구는 아버지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오혜주(2007)이 수정, 번안한 Schaefer와 Greenberg(1997)의 성인용 놀이성 척도(Playfulness Scale for Adults·PSA)를 사용하였다. 이 놀이성 척도는 5가지 요인—익살스러움, 유머감각, 재미탐닉, 비형식성, 별난—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를 오혜주(2007)가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익살스러움, 유머감각, 재미탐닉의 3요인 총 18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익살스러움’은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농담을 좋아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유머감각’은 상대방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성향을 말하고, ‘재미탐닉’은 풍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미를 끌어내는 성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아버지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자신과 가까운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놀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익살스러움’이 .690, ‘유머감각’이 .730, ‘재미탐닉’이 .624로, 본 연구의 아버지 놀이성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18로 나타났다.

3.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

본 연구는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소연 등(2018)이 개발하여 백선정(2020)이 수정하여 사용한 놀이참여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3개의 하위영역(민감하게 놀기, 반응적으로 놀기, 즐겁게 놀기)을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여 ‘민감하게 인지하기’와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의 2요인으로 수정하였으며, 12,

18, 19번 문항은 삭제되어 총 17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요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민감하게 놀기’가 .742, ‘반응이 고 즐겁게 놀기’ .880으로, 본 연구의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95로 나타났다.

4. 아버지 일-가정 갈등

본 연구는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inamon과 Rich(2002)가 수정 및 개발하고 유성경 등(2012)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inamon과 Rich(2002)는 Gutek(1991) 등이 개발한 8개의 문항에 6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척도는 ‘일-가정 갈등’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과 ‘가정-일 갈등’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동의함’ 5점으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일-가정 갈등’이 .881, ‘가정-일 갈등’ .874로, 본 연구의 아버지 일-가정 갈등의 전체 신뢰도는 .931로 나타났다.

C.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지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광주광역시 내 또는 전남 지역 소재의 유아 기관 담당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직접 방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라는 시기적 어려움과 연구의 주 대상자를 아버지로 설정함에 따라 낮은 회수율이 예상되어 2021년 8월 초에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엠브레인)을 통해 실시하였고, 총 304명의 아버지와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놀이성 척도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보고로,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참여 태도 및 일-가정 갈등 척도는 아버지 직접 보고로 작성되었다.

D.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6과 Process Macro version 4.0(Hayes, 20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6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변인들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SPSS 26을 사용하여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의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SP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모형(모델4), 조절모형(모델1), 조절된 매개 모형(모델7) 순서로 검증하였고, 각 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SPSS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Aiken & West, 1991).

PROCESS Macro의 결과에 나타난 모든 효과는 표준화 계수(β)보다 비표준화 계수(B)가 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Hayes, 2013) 본 연구에서는 모든 효과를 비표준화 계수(B)로 보고하였다.

VI. 연구결과

A.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기술통계치 결과와 측정 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하단의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놀이성은 매개변수인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r = .452, p < .001$)와 종속변수인 유아 놀이성($r = .290, p < .001$)과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와 종속변수인 유아 놀이성도 정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r = .573, p < .001$). 조절변수인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은 매개변수인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r = -.271, p < .001$)와 종속변수인 유아의 놀이성($r = -.135, p < .05$)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놀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2> 측정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N=304)

	1	2	3	4
1. 유아 놀이성	-			
2. 아버지 놀이성	.290***	-		
3.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	.573***	.452***	-	
4. 아버지 일-가정 갈등	-.135*	.092	-.271***	-
<i>M</i>	131.132	47.645	77.069	37.658
<i>SD</i>	15.303	6.398	8.511	10.264

* $p < .05$, ** $p < .01$, *** $p < .001$.

B.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기 전,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모델 1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매개된 조절효과와 구분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항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야 하며(배병렬, 2021), 이는 곧 종속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는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함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 놀이성과 조절변수인 일-가정 갈등의 상호작용 항이 종속변수인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181, p = .05, p > .05, 95\%CI [.000, .362]$), 이는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첫 번째 가정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 모델 4(Hayes, 2013)를 사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하단의 <표 3>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한 후 95%의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형 1에서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놀이성은 매개변수인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선행변수로서 유의하였고($B = .541, p < .001$), 모형 2에서도 종속변수인 유아의 놀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 = .357, p < .001$). 모형 3에서 매개변수인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는 종속변수인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쳤으나($B = .571, p < .001$),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간접효과의 계수는 .309이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95% CI [.220, .409])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N=304)

Variable	모형 1 종속변수 :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			모형 2 종속변수 : 유아 놀이성			모형 3 종속변수 : 유아 놀이성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Constant	2.421 (.164)		14.753** *	2.801 (.181)		15.485** *	1.419 (.203)		6.980***
아버지 놀이성	.541 (.061)	.452	8.803***	.357 (.068)	.290	5.275***	.049 (.065)	.039	.745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							.571 (.054)	.555	10.501** *
<i>F</i> (<i>df₁</i> , <i>df₂</i>)	77.500***(1, 302)			27.822***(1, 302)			74.081***(2, 301)		
<i>R</i> ²	.204			.084			.330		

<표 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Effect	Boot SE	95%	
		LLCI	ULCI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	.309	.220	.409

Bootstrap sample = 5000

C. 아버지 놀이성과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일-가정 갈등의 조절효과 분석

아버지 놀이성이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모델 1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하단의 <표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에 대한 아버지의 놀이성(A)과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B)의 상호작용항의 설명량은 28.1%로 나타났으며(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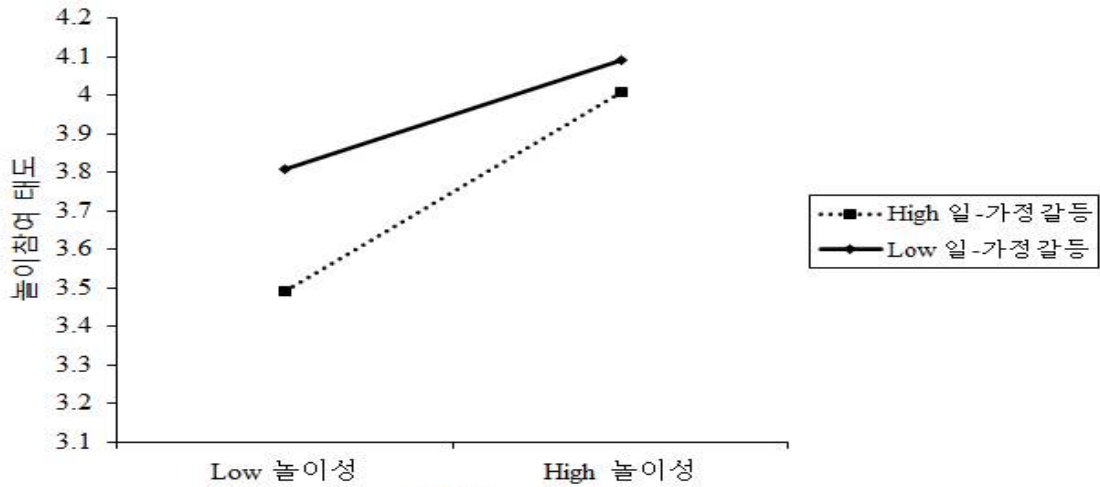
39.064(3, 300), $p < .001$),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AxB)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252$, $p < .01$).

다음으로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아버지 일-가정 갈등 수준에 따른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으며, 각 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의 크기와 방향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절변수의 특정 값(평균, -1SD, +1SD)에서 단순 기울기(simple slope)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PROCESS Macro를 통해 회귀선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고(Aiken & West, 1991), 그 결과를 <표 6>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일-가정 갈등 수준이 낮은 집단인 경우(-1SD) .395(95% CI [.256, .533]), 높은 경우(+1SD) .764(95% CI [.570, .958]), 그리고 평균 수준의 집단 .579 (95% CI [.457, .702])로, 전 영역에서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 크기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표 5> 아버지 놀이성이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의 아버지 일-가정 갈등의 조절효과 검증 ($N=304$)

Variable	B	SE	t	95% 신뢰구간	
				LLCI	ULCI
Constant	3.860	.021	184.764***	3.818	3.901
아버지 놀이성 (A)	.579	.062	9.303***	.457	.702
아버지 일-가정 갈등 (B)	-.142	.029	-4.962***	-.199	-.086
A×B	.252	.080	3.135**	.094	.410
$F(df_1, df_2)$	39.064***(3, 300)				
R^2	.281				

*** $p < .001$.



[그림 2]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에 대한 아버지 놀이성과 일-가정 갈등의 상호작용 효과

<표 6> 조절효과 단순 회귀선 검증

Variable	B	SE	t	95%	
				LLCI	ULCI
-1SD	.395	.070	5.606***	.256	.533
0	.579	.062	9.303***	.457	.702
+1SD	.764	.099	7.739***	.570	.958

* $p < .05$, *** $p < .001$.

D. 아버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일-가정 갈등에 의한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매개효과와 아버지 놀이성과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동시에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일-가정 갈등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B = .181, p = .05, p > .05, 95\%CI[.000, .362]$), 조절된 매개효과와 분석을 위한 모든 가정이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아버지 놀이성이 놀이참여 태도를 통해 유아 놀이성으로 미치는 영향에 있

어서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모델 7번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놀이성(A)과 아버지 일-가정 갈등(B)의 상호작용 항이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B = .252, p < .01$).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가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 = .571, p < .001$). 또한, <표 8>을 통해 조절된 매개지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가 각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95% CI [.051, .249]).

보다 세부적으로 각 수준에 해당하는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와 신뢰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한 통계절차에 따라 검증하였고 (Preacher, 2007),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것과 같이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의 평균 -1SD 집단, 평균 집단, 평균 +1SD 수준에서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 수준이 낮을 때($B = .225, SE = .051, 95\% \text{ CI} [.126, .323]$)보다 높을 때($B = .436, SE = .070, 95\% \text{ CI} [.303, .575]$), 아버지의 놀이성이 놀이참여 태도를 통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영향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표8). 이는 곧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이 간접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으로 인해 유발된 심리적 영향이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에 영향을 많이 끼쳐 유아의 놀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아버지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와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사이에서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매개효과는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7> 아버지 일-가정 갈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N=304)

종속 변수 :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					
Variable	B	SE	t	95%	
				LLCI	ULCI
Constant	3.860	.021	184.764***	3.818	3.901
아버지 놀이성 (A)	.579	.062	9.303***	.457	.702
아버지 일-가정 갈등 (B)	-.142	.029	-4.962***	-.199	-.086
A×B	.252	.080	3.135**	.094	.410
<i>F(df₁, df₂)</i>			39.064***(3, 300)		
<i>R²</i>			.281		
종속 변수 : 유아 놀이성					
Variable	B	SE	t	95%	
				LLCI	ULCI
Constant	1.548	.215	7.355***	1.136	1.962
아버지 놀이성	.049	.065	.746	-.080	.177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	.571	.054	10.501***	.464	.678
<i>F(df₁, df₂)</i>			74.081***(2, 301)		
<i>R²</i>			.330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조절된 매개 검증

Variable	Index	Boot SE	95%	
			LLCI	ULCI
A×B	.144	.051	.051	.249

<표 9>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Variable	Effect	Boot SE	95%	
			LLCI	ULCI
-1SD	.225	.051	.126	.323
Mean	.331	.048	.240	.430
+1SD	.436	.070	.303	.575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와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또한,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의 수준이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 태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고,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이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는 유아의 놀이성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며, 특히 아버지의 놀이성은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를 완전매개로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놀이성은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를 통해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놀이참여는 부모의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아버지의 성격특성은 행동의 결정인자로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며(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2002; 황지현, 2012 재인용), 아버지의 민감하게 인지하기 놀이참여 태도와 반응적이고 즐겁게 놀기 놀이참여 태도는 유아의 실행기능과 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백선정, 김희화, 202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놀이참여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과 총점은 부모의 놀이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이소연 등, 2018)와 아버지의 적극적인 놀이참여 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 연구(박하얀, 배선영, 2018)와 맥을 같이하며,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수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김영덕, 2016; 부정민, 김진선, 2009).

즉, 아버지 놀이성 수준의 높고 낮음이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아버지-유아 자녀 간 놀이 상황에서 나타내는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 구체적으로 말해, 자녀가 흥미로워하고 즐거워하는 놀이를 민감하게 인지하여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의 눈높이와 놀이의 속도에 맞춰 반응하는 태도를 더 많이 나타낼수록 아버지와 유아 자녀는 즐거운 기분을 더 많이 공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유아 자녀는 놀이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되면서 놀이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곧 유아의 놀이성 증진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발달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여러 현실적인 여건으로 놀이참여의 양(시간, 빈도)을 늘리기 어려운 아버지들에게 있어 자녀와의 놀이 시 나타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며 이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 증진 및 건강

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를 증진 시키기 위한 개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이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 태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분석한 결과 일-가정 갈등의 조절 효과는 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놀이성이 높을수록 놀이참여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때 일-가정 갈등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놀이성이 놀이참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일과 가정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더 많이 느낄수록 유아 자녀와의 놀이시 발현되는 태도가 악화 되는 것을 의미하며, 갈등 수준이 낮은 경우 이러한 효과를 완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한 놀이 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이며(Grossman F., Pollack, W., Golding, E. et al 1988), 아버지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변인들 중 심리적 특성이 아버지의 역할에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선화, 1998)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일-가정 갈등 수준에 따라 놀이성이 놀이참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나 그 정도가 놀이성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가정 갈등을 많이 느끼는 집단에서 놀이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 나타나는 놀이참여 태도의 수준의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일과 가정 영역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놀이성이 놀이참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나 이때, 놀이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역할 갈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 정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 놀이성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적극성, 긍정적인 대처 양식 등을 수반한 개인 내적 특성이고(부정민, 김진선, 2009), 이는 곧 일-가정 갈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 정서에 대해 대처하는 양식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여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은 놀이참여 태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나 기질적 요인인 놀이성이 보호 기제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조절된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의 매개효과와 아버지 놀이성과 놀이참여 태도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 수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아버지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아버지 놀이성이 놀이참여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

는데, 이때 아버지가 일과 가정에서 역할 갈등을 심하게 경험할수록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의 놀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이때, 앞서 제시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일-가정 갈등 수준에 따라 놀이성이 놀이참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나 놀이성이 낮은 아버지일수록 역할 갈등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역할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심리적 상태가 기질적인 성격을 띠는 놀이성과 상호작용하여 아버지-유아 자녀의 놀이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하고, 이는 곧 유아의 놀이성 발달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정 아버지들이 일과 가족 간 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적 에너지 상태가 고갈되고 양육에 있어 피로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아동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하문선, 2018; Costigan et al., 2003; Goldberg et al., 2002)와 Abidin(1995)의 양육 스트레스 모형에 따라 우울한 부모 특성의 영향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악화 시킨다는 연구(김향, 심숙영, 201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유아는 발달적 시기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중 부모의 역할 및 적극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Vygotsky, 1978). 또한,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 놀이 활동을 하며 보내고, 이전 시기의 아동과 달리 일상의 주제와 역할을 추상적인 가상 놀이로 전환하면서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때, 놀이 활동에 참여한 아버지가 자녀와의 놀이에 흥미를 보이고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유아는 자신의 놀이가 가치 있음을 느끼고 더욱 놀이에 몰입할 수 있어 놀이성의 수준이 높아진다(Fein, 1985).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유아 자녀와의 놀이에서 놀이성이 낮은 아버지들은 높은 아버지들에 비해 유쾌하게 전환하는 수준이 낮고 적극성이 떨어지며, 덜 긍정적이다(김영덕, 2016; 부정민, 김진선, 2009). 이러한 아버지의 놀이성 수준은 아버지-자녀의 놀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역할 갈등을 심하게 경험하게 될수록 자녀의 정서적 반응에 더욱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자녀의 필요에 맞춰 유쾌하게 반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놀이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고갈된 심리적 에너지 상태가 놀이 상호작용에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질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형식적인 참여보다는 질적인 놀이참여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수의 기존 연구의 제언에 뒷받침하는 결과로 제시될 수 있다(곽경화 등, 2020; 김선희, 2013; 김영덕, 2016; 문성희, 2019). 이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구축 및 심리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잔존하는 젠더 의식으로 인해(이주리, 송지원, 2020; 채화영, 2012) 이미 구축되어있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의 문화를 통한 긍정심리를 경험하는 아버지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제도들을 아버지들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부부관계가 일-가정 갈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 정서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연은모, 최효식, 홍윤정, 김정아, 2014; 이진희, 이소현, 2017)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끝으로 놀이성이 일-가정 갈등에 대해 보호 기제로 작용 될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놀이성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 시키기 위한 개입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참여 태도의 완전매개 효과를 통해 그간 제시되었던 아버지의 놀이성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비밀관된 결과들(김영덕, 2016; 부정민, 김진선, 2009; 전해영, 이희선, 2019; Cabrera, Shannon, & Tamis-LeMonda, 2007)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아버지와 유아 자녀 간 질적인 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 연구들(김선훈, 2013; 김영덕, 2016; 광경화 등, 2020; 문성영, 심성경, 2020; 문성희, 2019)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간 성인의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이 개인 내적 특성이 강한 기질적인 요인(Mills & Grusec, 1988)으로서 다른 외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거나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는 변인이었고, 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연결할 기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 놀이에 참여하는가 또는 얼마나 ‘자주’ 놀이에 참여하는가 등을 측정하는 양적 놀이변수가 아닌 ‘어떻게’,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를 측정하는, 즉, 놀이의 질적인 부분을 탐색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놀이참여 태도의 완전매개 효과를 통해 아버지의 놀이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주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곧 아버지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적극적인 놀이참여 태도가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부모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자녀 놀이지도가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는 연구결과(이방실, 2015 재인용; 전정윤, 정미라, ; 홍길희, 황정해, 2006)와 더불어 놀이참여 태도 증진에 초점을 맞춘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며, 아버지-자녀의 놀이 상호작용

용의 질이 유아의 긍정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상담자 또는 치료자의 교육적 개입 후 주 양육자와 유아 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의 변화추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부모 역량, 양육 효능감 등을 고취 시키며 궁극적으로 아버지-자녀 간 애착 및 놀이성을 증진하여 유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 아버지 놀이성이 놀이참여 태도를 매개로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 수준이 유아의 놀이성 증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을 줄이고, 일-가족 향상을 높이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하문선, 2018; Frone, 2003). 현재 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수요일은 가족의 날 지정 조기 퇴근 지지하기[목포시, 춘천시, 울산 현대그룹, 여성가족부]’, ‘주 52시간 근로시간[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기존의 제도들이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성 역할 가치감을 위한 인식의 전환 및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하며(이주리, 송지원, 2020; 채화영, 2012),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심리 변인의 감소를 위한 심리지원 방안 및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부부 상담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며, 부모 상담 시 놀이성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 시키기 위한 개입 및 부모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버지와 관련한 놀이 변인과 역할 갈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인 정서 변인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데 ‘놀이 상호작용자’, ‘공동양육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강조하여 아버지 역할을 환기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과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가 늘고 있고, 어머니의 놀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자극을 유아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상으로만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이 증가하면서 가계의 형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어머니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과 아버지가 지각한 일-가정 갈등은 ‘역할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느끼는 갈등의 수준이 질적으로 다를 것이 예상되어 후속 연구에서 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자기 보고식 척도로 아버지의 보고로만 작성되어 스스로 보고한 놀이성과 실제 놀이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매개변수로 설정된

놀이참여 태도는 놀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놀이 상호작용의 질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의 질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비구조화된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관찰도구를 통한 관찰 분석 또한 효과적일 수 있다(Miller, 2005).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한 더욱 객관적이고 정밀한 자료수집 방법을 추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 간 상관은 있으나 그 정도가 낮은 범위에 속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면 더 강한 상관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연구에서는 변인 간 강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더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하고, 상관관계에 영향을 줄 통제 변수에 대한 탐색을 통해 보완하여 실시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데 그쳤으나 일반적 특성 중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변인을 월소득 수준(김연하, 2019; 이슬기, 2007; 한미림, 2020), 연령(이주리, 송지원, 2020), 자녀의 성별(이슬기, 2007) 등과 함께 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아버지의 놀이 변인, 일-가정 갈등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참 고 문 헌

- 강가원, 장진이 (2016). 기혼 직장인의 직무과부하, 심리적 분리, 일-가정 갈등, 삶의 만족도간의 구조적 관계. **상담학연구**, 17(3), 419-440.
- 고소영 (2003).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실, 부정민 (2009). 부모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4(1), 95-112.
- 고정리 (2020). 유아의 놀이성과 행복감 관계에서 부모의 놀이지지 신념 및 놀이 참여도의 매개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483-503.
- 고현, 박신희, 백지성 (2020). 유아 놀이성과 사회정서발달 관계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동아인문학**, (53), 325-352.
- 곽경화, 최진숙, 백승선 (2020). 부모의 놀이신념과 놀이참여태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4(5), 155-173.
- 권인옥, 안효진 (2015). 영아를 둔 아버지들의 부모 효능감, 놀이 신념, 그리고 영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7(4), 165-183.
- 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동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1), 333-350.
- 김경은 (201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능력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17.
- 김기순, 박인전 (2002). 아버지 양육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5(2), 27-43.
- 김선혜 (2013).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놀이성과 아동의 리더십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학위논문**.
- 김재희, 노지영 (2021). 부모양육과 유아의 주의집중 문제행동에 대한 유아의 성별과 인지적(cool) · 정서적(hot) 실행기능의 조절된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42(1), 1-15.
- 김희영, 유효인 (2019). 아버지 일-가정 양립 갈등이 아버지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 19-40.
- 김명순, 김길숙, 박찬화 (2012). 유아용 놀이성 평정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3(2), 69-89.
- 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 (2012). 주제발표 : 부모와 유아 자녀의 놀이에 관한 연

- 구: 부모의 놀이신념과 놀이참여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9(0), 17-37.
- 김연하, 장욱, 서홍우 (2019).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 군집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 **육아정책연구**, 13(3), 81-98.
- 김영덕 (2016). 부모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만 2세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김영주 (2006).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유아의 놀이성,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김정주, 박형신 (2017) 아버지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놀이몰입,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7(3), 29-48.
- 김종석 (2011). 아버지의 놀이성과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논문**.
- 김희태, 김정립 (201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 및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0(3), 71-92.
- 두정일, 노민정 (2014). 한국-뉴질랜드 부모의 양육태도, 유아의 놀이성 및 리더십에 대한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류희정, 이진희 (2013). 유아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8(2), 47-64.
- 문성영, 심성경 (2020).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놀이성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2(1), 163-189.
- 박봉선, 엄명용 (2016). 취업모의 직장-가정 역할갈등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4, 7-39.
- 박선영 (2010). 유아의 놀이성과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박영애, 최영희, 박인진, 김향은 (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43-60.
- 박유란 (2020) 부모의 코칭 역량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학위논문**.
- 박애경, 김보라, 연규승 (2018). 유아의 놀이성과 인지능력, 언어능력,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분석. **幼児教育學論集**, 22(6), 337-357.
- 박정연, 이성희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실천유아교육**. 14(1), 40-57.

- 박주희 (2015).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역할갈등, 배우자지지 자원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9(3), 41-62.
- 박하얀, 배선영 (2018). 아버지의 놀이성과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6), 123-141.
- 박현진, 이현진, 정효림, 정정희 (2019).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 놀이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 245-267.
- 박현진, 정정희 (2017).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부정민, 김진선 (2009) 부모 놀이성과 유아 놀이성 간의 관계.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4(2), 1-15.
- 배미경, 김용미 (2016). 유아와 아버지의 변인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 323-346.
- 백선정, 김희화 (2020). 유아의 실행기능에 대한 부모의 놀이참여수준 및 놀이참여태도의 인과적 영향. **아동학회지**, 41(6), 37-50.
- 백승선, 최진숙, 광경화 (2020). 부모의 놀이참여태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2), 79-105.
- 송경은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 논문**.
- 신윤정, 김은하 (2021) 맞벌이 기혼 남성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직무소진간의 관계 :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통한 일→가정 갈등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1), 87-114.
- 신이나 (2019) 부모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승실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오민아, 변길진, 권정윤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 가치와 양육분담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幼兒 教育學論集**. 22(5), 429-448.
- 오지현, 임시형(2018).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이성, 공감적 정서반응과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9(6), 113-130.
- 강지혜, 이경남 (2011) 유아의 개인적 요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59-180.
- 우수경 (2008). 유아의 성, 기질, 정서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2), 259-280.

- 연은모, 최효식, 홍운정, 김정아 (2014). 영유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 양육협조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특성의 매개효과와 배우자의 취업유무의 조절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6, 51-78.
- 이미선 (2011) 부모의 놀이신념과 놀이성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이배, 김경숙 (2013).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아동교육**, 22(3), 191-206.
- 이소연, 위영희, 유재령, 정윤주, 이영애, 김리진 (2018). 영유아 부모의 놀이참여태도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1(4), 491-507.
- 이소진, 김은석, 유성경 (2017). 워킹맘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2(4), 767-782.
- 이슬기, 전귀연, 김수경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의 역할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1), 35-49.
- 이연실 (2010). 유아의 놀이성과 리더십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3.1 (2010): 33-48.
-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온정적 양육행동 및 학령 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9(3), 141-156.
- 이주리, 송지원 (2020). 아버지의 성역할 가치감과 우울이 일-양육 갈등에 미치는 영향. **兒童學會誌**, 41(3), 1-12.
- 이주일, 유경 (2010). 직장-가정 갈등의 세대 차이와 직장-가정 갈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3(3), 471-501.
- 이진희, 이소현 (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코칭연구**, 10(4), 101-116.
- 이한별(2008). 부모의 유아 놀이신념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지, 정혜옥 (2016). 부모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1(4), 77-95.
- 임성혜, 차현화, 윤현숙 (2003). 부모 및 교사의 역할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 역할 놀이와 신체놀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7(2), 8-205.
- 원희영 (1998). 아버지의 놀이 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아동연구**, 2, 139-141.

- 장여옥 (2016). 아버지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7-182.
- 장영숙, 조혜정 (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0(1), 251-268.
- 전숙희 (2015). 아버지의 양육행동, 놀이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 전유진, 유미숙 (2020). 유아기질 및 모애착과 유아 사회성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2(1), 21-42.
- 전혜영, 이희선 (2019). 아버지의 놀이성이 아버지-유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 아버지의 놀이 참여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2), 103-123.
- 정연주, 최지영 (2021). 2019 개정누리과정에 대한 유아교사 놀이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6(1), 195-205.
- 정선영 (2019). 부모의 놀이신념,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인식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상담심리교육복지**, 6(4), 149-159.
- 정은화 (2020)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자녀교육 갈등이 모의 양육 수행 역량에 미치는 영향 : 모의 부모-자녀 동일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1(2), 89-101.
- 정정옥, 이형민 (201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놀이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놀이참여의 매개 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9(1), 121-138.
- 정태숙, 김영희 (2014). 어머니의 근무시간과 가사노동시간 및 가정-직장간 갈등이 자녀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2), 175-195.
- 조다현, 성지현 (2020). 유아의 실행기능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兒童學會誌** 41(4), 61-73.
- 조선화 (1998).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의 동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4(1), 179-203.
- 추민진, 강진주 (2021). 아버지와 영유아 놀이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75-790.
- 최미숙, 문인정 (2020). 유아의 놀이성과 회복탄력성이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 **아동교육**, 29(2), 231-247.
- 최수찬, 김종성 (2016). 중소기업 기혼 근로자의 직장 - 가정 갈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내 가족친화제도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실천과 연**

- 구, 13(1), 141-176.
- 최유석, 임지영 (2021). 부모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놀이성, 자기조절능력 및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1), 71-82.
- 최윤지 (2017).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5(3) 173-202.
- 최태선 (2020). 아버지의 놀이신념과 유아 놀이성 관계에서 아버지의 놀이 참여도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7), 333-342.
- 최항석 (2015). 항공사 승무원이 지각하는 직장-가정갈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15(4), 93-101.
- 하문선 (2018).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529-552.
- 하미현 (2010). 유아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신념과 만 5세 유아의 놀이성 및 행동적 자기 조절력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한미림 (2020).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한의선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정 갈등 및 촉진과 직업만족도가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현성은, 문계완 (2015).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감정적 소모와 긍정심리자본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15(3), 315-346.
- 홍수경 (2010). 유아의 놀이에 관한 부모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황윤세, 최미숙 (2007). 기질과 사회적 유능감이 유아 놀이성에 미치는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49-66.
- 황지현 (2012)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참여도 및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구조모형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 Abidin, R. R(1995). Parenting Stress Index(3rd ed.) :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ment Resources*, 20(2), 291-310.
- Becoming parent ; *"Daddy's Funny!" Fathers' playfulness with youg children*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 51-74.
- Erikson (1972). *Play and development*. New York : Nortan

- MacDonald, & Parke.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 MacDonald, & Parke. (1986). Parent-Child physical play: The effects of sex and age of children and parents.
- McBride, & Mills (1993). A comparison of mother and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 age children.
- Mills, R.S., & Grusec. J. E. (1988). Soci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 S. W. Duck(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Newyork; Wiley.
- Glynn, M. A., & Webster, J. (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s, 71*, 83-103.
- Grossman, F., Pollack, W., Golding, E. et al. (199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 Psychology, 24*(1), 82-92.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19-224.
- Tamis-LeMonda, Shannon, Cabrera, & Lamb. (2004). Fathers and Mothers at Play with their 2-and 3-year-olds: Contributions to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부 록

1. 설문지 안내문
2. 유아 놀이성 척도
3. 아버지 놀이성 척도
4.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 척도
5. 아버지 일-가정 갈등 척도

부록1. 설문지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지는 아버지의 놀이성, 놀이참여 태도, 일-가정 갈등과 유아의 놀이성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선생님의 응답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를 위한 자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선생님의 보고는 아동발달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척도이며, 각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질문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평소 느끼고 생각한 대로 한 문장도 빠짐없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은 10분에서 15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00월

조선대학교 상담심리 대학원 아동상담 전공
지도교수 오 지 현
연구자(석사) 손 에 리

※ 문항 체크 시 중복체크(한 문항에 2개 이상의 답변) 또는 누락된 문항이 있는 질문지는 분석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을 유의하시어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 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만 3~5세의 유아로 한 명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의 성별 : ① () 여 ② () 남
2. 자녀의 출생년도 : _____년 (_____월 생)
3. 자녀의 출생순위 : ()남 ()녀 중 ()째
4. 자녀가 다니는 기관은?
 ① () 어린이집 ② () 유치원 ③ () 기타 : _____
5. 귀하의 연령 : _____년 생
6. 귀하의 최종학력
 ① ()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 전문대 졸업 혹은 대학 중퇴 ③ () 4년제 졸업
 ④ () 대학원 졸업 이상 ⑤ () 기타 : _____
7. 아버지의 직업에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 가사진담
 ② () 자영업
 ③ () 생산. 기능. 노무직 (생산직, 근로자, 기능공, 운전사 등)
 ④ () 서비스. 영업. 판매직 (음식업, 숙박업, 조리사, 판매 관리자, 판매원, 경찰관 등)
 ⑤ () 일반 사무직 (회사원, 은행원, 사무관련 종사자 등)
 ⑥ () 전문직 (교수, 교사, 의사, 법조인, 연구원, 작가, 예술가, 군인 등)
 ⑦ () 기타 : _____
8. 아버지의 근무시간 1) 평일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2) 주말 하루 평균 _____시간 _____분
9. 월 가계 수입
 ① () 100만원 미만
 ②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③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⑤ ()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⑥ ()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⑦ () 600만원 이상

10. 귀하께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평일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 2) 주말 하루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부록2. 유아 놀이성 척도(35문항)

※ 다음의 문항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께서 응답해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놀이할 때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다음의 질문을 잘 읽으시고 자녀가 보이는 행동과 성향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만 3~5세의 유아로 한 명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역할이나 모습을 꾸며서 행동한다.	1	2	3	4	5
2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가지고 놀이한다.	1	2	3	4	5
3	하나의 놀이에서 다른 놀이로 확장한다.	1	2	3	4	5
4	놀이를 더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5	놀이 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놀고자 한다.	1	2	3	4	5
6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다른 친구, 성인)을 놀이에 참여시킨다.	1	2	3	4	5
7	놀이를 할 때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다른 역할도 함께 한다.	1	2	3	4	5
8	놀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한다.	1	2	3	4	5
9	놀이 시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	1	2	3	4	5
10	놀이를 할 때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놀이감을 사용한다.	1	2	3	4	5
11	놀이 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2	순조롭고 융통성 있게 놀이한다.	1	2	3	4	5
13	놀이 중 놀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어내며 놀이한다.	1	2	3	4	5
14	놀이를 스스로 계획한다.	1	2	3	4	5
15	놀이 시 필요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유아와 협상할 수 있다.	1	2	3	4	5
16	다른 유아와 함께하는 놀이에 참여한다.	1	2	3	4	5
17	다른 유아의 놀이를 도와준다.	1	2	3	4	5
18	이미 활동을 시작한 놀이 집단이라도 나중에 합류할 수 있다.	1	2	3	4	5
19	놀이 시 다른 유아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1	2	3	4	5

20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놀이 상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정, 언어, 몸짓 등을 사용해 단서를 준다.	1	2	3	4	5
21	다른 유아에게 함께 놀자고 말할 수 있다.	1	2	3	4	5
22	다른 유아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 하도록 도와준다.	1	2	3	4	5
23	놀이하는 동안 다른 유아의 말을 경청한다.	1	2	3	4	5
24	소외된 다른 유아를 놀이에 참여시킨다.	1	2	3	4	5
25	다른 유아들과 놀이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1	2	3	4	5
26	놀이하는 동안 다른 유아의 참여를 수용한다.	1	2	3	4	5
27	놀이 시 다른 유아와 놀잇감 및 기구를 공유할 수 있다.	1	2	3	4	5
28	놀이하는 동안 즐거워한다.	1	2	3	4	5
29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이야기한다.	1	2	3	4	5
30	놀이를 하면서 미소를 짓거나 소리 내어 웃는다.	1	2	3	4	5
31	놀이 규칙을 만들어서 다른 유아에게 제시한다	1	2	3	4	5
32	다른 유아와 규칙을 지키면서 놀이한다.	1	2	3	4	5
33	놀이하는 동안 만족스러워한다.	1	2	3	4	5
34	놀이 활동 중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자랑한다.	1	2	3	4	5
35	장난스러운 놀이를 즐긴다.	1	2	3	4	5

부록3. 아버지 놀이성(18문항)

※ 다음의 문항은 <아버지>께서 응답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귀하의 성향 내지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유머감이 부족하고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	나는 내 침실에 농구 골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1	2	3	4
3	나는 때때로 우스운 표정을 하거나 유치하게 행동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4	나는 샤워를 할 때, 노래를 부르거나 혼자 춤을 추기도 한다.	1	2	3	4
5	나는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6	나는 스스로 잘 웃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1	2	3	4
7	나는 인생이 비관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8	나는 우울할 때, 기분을 좋게하기 위해 웃으려고 한다.	1	2	3	4
9	나는 심각한 상황에서라도 즐거운 면을 찾으려고 한다.	1	2	3	4
10	나는 되도록 많이 웃거나 미소 짓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11	나는 농담을 하거나 장난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1	2	3	4
12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주로 내가 먼저 재미있는 일이나 행동을 한다.	1	2	3	4
13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보수가 많은 것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을 더 선호한다.	1	2	3	4
14	나는 눈덩이를 던지거나 눈사람 만들기, 모래성 쌓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15	나는 충동성과 부정적인 감정을 엄격히 자제하는 편이다.	1	2	3	4
16	나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17	사람들은 나를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18	나는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좋아한다.	1	2	3	4

부록4. 아버지 놀이참여 태도(17문항)

※ 다음의 문항은 <아버지>께서 응답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와 같이 놀이하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께서 놀이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놀이를 하고 싶은지 안다.	1	2	3	4	5
2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1	2	3	4	5
3	아이가 평상시 흥미를 느끼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놀이가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4	놀이 중에 아이의 기분 변화를 안다	1	2	3	4	5
5	놀이를 할 때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역할, 도움, 반응 등) 안다.	1	2	3	4	5
6	아이가 놀이에 집중할 때는 아이를 그냥 조용히 지켜본다.	1	2	3	4	5
7	아이가 어떤 놀잇감을 고를 때 그것을 가지고 무슨 놀이를 할지 안다.	1	2	3	4	5
8	아이가 놀이할 때 흥미를 보이는 대상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며 반응한다.	1	2	3	4	5
9	아이가 놀이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거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2	3	4	5
10	아이가 놀이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에 긍정적인 말(칭찬, 공감, 격려)을 해준다.	1	2	3	4	5
11	아이가 놀이에서 보여주는 신호(예 : 얼굴표정, 동작, 의성어 표현 등)에 반응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3	아이와 놀이할 때 내 목소리나 행동을 아이의 기분에 맞춘다.	1	2	3	4	5
14	아이와 함께 집중해서 논다.	1	2	3	4	5
15	아이가 즐기는 놀이라면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관심을 갖고 함께 논다(낯선 싸움놀이, 딱지치기 등).	1	2	3	4	5
16	아이의 눈높이(놀이수준)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논다.	1	2	3	4	5
17	바빠도 아이와의 놀이시간은 가지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0	아이와 즐겁게 놀이를 시작해서 즐거운 기분으로 마무리한다.	1	2	3	4	5

부록5. 아버지 일-가정 갈등(14문항)

※ 다음의 문항은 <아버지>께서 응답해주셔야 합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께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생각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에 표시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내용	전혀 동의 하지않 음	동의하 지 않음	보통	동의함
1	나는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너무 지쳐서 집안일을 하기 어렵다.	1	2	3	
2	나는 직장 일 하는 데 보내야 할 시간을 개인적인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한다.	1	2	3	
3	나는 직장 일하는데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다.	1	2	3	
4	나의 가족과 개인적인 일은 직장 일을 방해한다.	1	2	3	
5	나는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 직장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1	2	3	
6	집에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나는 보통 지쳐서 직장에 도착한다.	1	2	3	
7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직장 일 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1	2	3	
8	나는 직장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가족과 집안일에 대해서 걱정한다.	1	2	3	
9	직장 일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인해 나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1	2	3	
10	가족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1	2	3	
11	직장 일은 가족 생활을 방해한다.	1	2	3	
12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나는 직장 일을 완수하기가 어렵다.	1	2	3	
13	직장 일을 완수하려고 할 때, 나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1	2	3	
14	나의 가족 생활을 직장 일을 방해한다.	1	2	3	